

큰형들의 교회

2019년 12월 15일 주일 설교

“기쁨의 강물” A River of Joy

최근 수요 예배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세 번에 나누어 살펴 보았습니다. 첫 날에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 비유를 보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Father)이라는 책에서 잘 지적했듯이,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사랑에 아낌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날에는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하나님 없는 삶’이 실은 불행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행의 나락에 이르러서야 제정신이 들었고 죽어도 아버지 품에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주에는 세 번째로 큰 아들의 관점에서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문제 되는 사람은 큰형입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그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쌓아 올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생 일로 인해 아버지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 동생을 판단하고 심판했을 뿐입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 말로 ‘꼰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좁은문>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예수님의 비유를 변형하여 단편 소설 <탕자, 돌아오다>를 썼습니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왜 자신을 떠났느냐고 묻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는 집을 떠났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러면 왜 집을 떠났느냐?”고 묻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주인 노릇을 하는 형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큰형이 자기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집이 싫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앙드레 지드 당시의 교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큰형 노릇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큰형들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 소설을 통해 당시 교회의 위선과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신앙보다는 차라리 회의하고 방황하는 신앙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데, 큰형들의 눈초리만 보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회의하고 방황할 만한 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형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시험 들었다고 하고 이단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깨어 있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이 회의하며 방황하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큰형의 꼰대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고민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통125)
-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이사야서 35장 1-10절을 읽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임할 기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 말씀나눔**
 - 질문 전체를 읽어 주고 자신에게 와 닿는 질문에 답하게 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2. 지난 한 해 당신의 삶의 형편을 자연(정원, 평지, 골짜기, 광야 등)에 비유한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3. 기쁨과 재미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어떤 재미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4.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의 강물이 당신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 기도**
 1. 구원의 기쁨이 당신의 내면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십시오.
 2. 재미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 중보기도**
 1.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중보하십시오.
 2.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242장(통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난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묵상 안내
www.koinonia2019.com



수요예배

오후 8시 / 본당
인도: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김영봉 목사

강해 예수의 비유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다같이

사역자 연락처

직책	이름	전화	이메일
담임목사	김영봉	703-850-9447	bong320@gmail.com
영어권 담당목사	Danny Chung 대니정	213-210-4057	dannychung50@gmail.com
어린이 담당 디렉터	Alex Kim 알렉스김	571-201-0701	munkyong@hotmail.com
English Worship Pastor	HK Kim 김형균	703-346-0001	hkkim122@gmail.com
사무행정	윤문경	703-944-7827	dalpool@hotmail.com

1. '하루 한 말씀' 이번 주 진도는 **누가복음 1장 및 마태복음 1장 16-25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19.com에 접속하시면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 담아 성탄 감사 예물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3시부터 성가대가 헨델의 '메시아'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주보에 놓어드린 홍보지로 이웃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공연은 모두 이중 언어로 진행합니다.
 3. 오늘 예배 후 3시 45분부터 217호실에서 목회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는 토요일(21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장용석/강준이 선교사 부부께서 남아공 선교에 대한 보고와 간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환영 애찬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Bi-district Training Day가 2020년 1월 18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Floris UMC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들께서는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bdttd.novaumc.org)
 6. 2020년도 '하루 한 말씀' 진도표가 나왔습니다. 새해에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 여선교회에서는 기금 모금을 위해 한국산 립스틱을 판매합니다(3 for \$10).. 또한 매실고추장도 앵플판매 합니다.(\$15)
- ❖ 연말연시 예배 안내
22일(주일) 오후 3시 헨델의 '메시아' 연주
25일(수요일) 오전 10시 성탄일 예배(연합예배)
수요 저녁 예배 없음
29일(주일) 예배 후 전교인 타운홀(새해 예산 보고, 목회 보고)
31일(화) 오후 8시(연합예배)
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없음
6일(월)-11일(토)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기니(Joshua Kim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일예배

-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제자반

- **속장사랑방**(인도: 김영봉 목사)
매달 첫째 토요일 오전 8시 / 217호
매달 둘째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217호

12월 하루 한 말씀 진도표

16일(월)	17일(화)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누가복음 1:1-25	누가복음 1:26-38	마태복음 1:16-25	누가복음 1:39-56	누가복음 1:57-66	누가복음 1:67-80

www.koinonia2019.com에서 매일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친교

날짜	담당속회
오늘	에바다속(윤두희)
12월 22일	나눔속(조용석)
12월 29일	사랑속(성호진)
1월 5일	예찬속(이청영)

회중기도와 성경봉독

날짜	회중기도	성경봉독
다음주	ES	ES
12월 29일	주규리	김은수
1월 5일	조관식	오은미
1월 12일	손지현	이준석

안내와 헌금 위원

12월 - 추영근/이승민 1월 - 양승엽/박수현 2월 - 김희수/김순자

***주일 설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WDCT1310 기쁜소리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12월 8일)

한어성인예배(KS)	186	주일학교	\$32
영어예배(ES)	19	주일헌금	\$109
청소년예배(Youth)	30	주정/월정	\$5,390
교회학교(Sunday School)	19	십일조	\$7,558.34
주일예배 출석 합계	254	선교헌금/UFO	\$240
		감사헌금/기타	\$570
수요예배(12/4)	30	Christmas	\$100
주간예배 출석 합계:	284	합계:	\$13,999.34

2019년 12월 15일 | 대림절 셋째 주일

본당 / 2:00pm

사회: 김영봉 목사

지휘: 최인달

피아노: 이애령 / 오르간: 김성은

- 전주 Prelude 오르간
-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말은이
- **대림절 촛불 점화** Lighting the Advent Candles 말은이
- **경배 찬송** “하늘에 계신” 635장 Hymn of Invocatio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찬송**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통125) Hymn of Praise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다같이
- **신앙 고백** 사도신경 Confession of Faith 다같이
-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장돈식
- 성경 봉독 이사야서 35장 1-10절 Scripture Reading Isaiah 35:1-10 이애란
- 찬양 Anthem 곧 오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 설교 Sermon **“기쁨의 강물” A River of Joy** 김영봉 목사
- **송영과 봉헌**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통348) 1절 Doxology & Offering Take My Life, and Let It Be 다같이
-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 속회특별찬양 Special Anthem 새부대속
- **결단의 찬송**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통233) Hymn of Commitment We Shall See the Desert as the Rose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사회자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as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offering into the trays in the chapel.